

호들링(HODLing)의 정의

호들 아니면 판매?

'호들과 판매 중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위 '호들링(HODL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고 소극적인 거래 기법 중 하나입니다. 호들링은 암호화폐의 장기적 가능성을 믿고 코인 가치가 향후 5년, 10년, 20년 사이에 오를 것이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호들'이라는 이 색다른 용어는 2013년에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미래 수익을 얻을 기회를 늘리는 암호화폐 전략으로 'FOMO(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FUD(Fear, doubts and uncertainties,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느끼면서 구매를 망설이는 것)'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들(HODL)'이란 무엇인가요?

'Hold on for dear life(내 인생을 걸고 버티는 것)'를 의미하며 이는 호들(HODL)이 내포하고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할 때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호들링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이를 거래소 상에 없는 안전한 지갑에 보관하고 최대 10년간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호들러(Hodler,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살 때보다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사용합니다. 호들링은 암호화폐 소유자가 갑작스러운 단기 가격 변화로 인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을 통해, 사용자는 시장의 끊임없는 등락에 반응하는 습관을 줄이고 단기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들은 호들러가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는 거래를 할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호들(HODL)'에 얽힌 스토리

'호들'이라는 단어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불안정하여 주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시기인 2013년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 애호가들이 온라인 포럼에 모여 자신의 대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극도로 괴로워하던 비트코인 투자자하나가 오류가 난무하는 포럼 게시글을 남기며 '나는 호들링하고 있어(I am Hodling)'라고 썼습니다. 이는 재미있는 철자 오류에 가까웠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재치있는 게시글 그 자체를 수용했습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호들은 단순한 구매 및 보유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단기 투자자의 마음과 다르게 엄청난 마음의 힘을 필요로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황매도(Panic selling)에 대해 용감하게 저항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호들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초보자에게 호들링이 왜 좋은 전략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사상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출시된 이후로 줄곧 급격한 변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불안정하며 가격 변동은 흔한 현상입니다. 수년간 암호화폐가 성장하면서 작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고, 이런 연유로 공황 판매(Panic selling)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들링 전략은 공황 판매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